

뮤지컬 축제에서 국제 뮤지컬 아트마켓으로

DIMF 박정숙 사무국장

전세계적으로도 국제 규모의 뮤지컬 페스티벌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구에서는 이미 14년 전부터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을 운영해왔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모든 행사를 무리없이 진행해 7월 5일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을 마쳤다. 창작뮤지컬의 산실로, 재능 있는 뮤지컬 꿈나무의 터전으로, 그리고 해외 뮤지컬 시장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DIMF. 15년째 쌓아온 결실들이 점점 더 빛을 발하고 있는 DIMF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박정숙 사무국장에게 들어보았다.

제 15회 DIMF의 성과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시대에도 무사히 제 15회 대구국제페스티벌을 마쳤다.

올해 DIMF의 성과라면?

해외 작품이 직접 무대에 오르는 것을 제외하고 야외에서 하는 부대행사를 강의식으로 변경하긴 했지만 거의 모든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외 여행 등에 제약이 생기고, 수도권에서도 공연 관람이나 각종 축제 등 문화 소비가 자유롭지 못해서였는지 작년도부터 대구 외 지역 관객 유입이 크게 늘었다. 전체 객석 점유율은 87.8%, 유료 객석 점유율은 약 80%이다. 이벤트 행사를 제외한 전체 유료 공연 관람객은 12,500명 정도가 올해 DIMF를 방문해 주셨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개막식을 중계해서 74개국에서 8만 6천 명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폐막식을 메타시어터로 172개국에 송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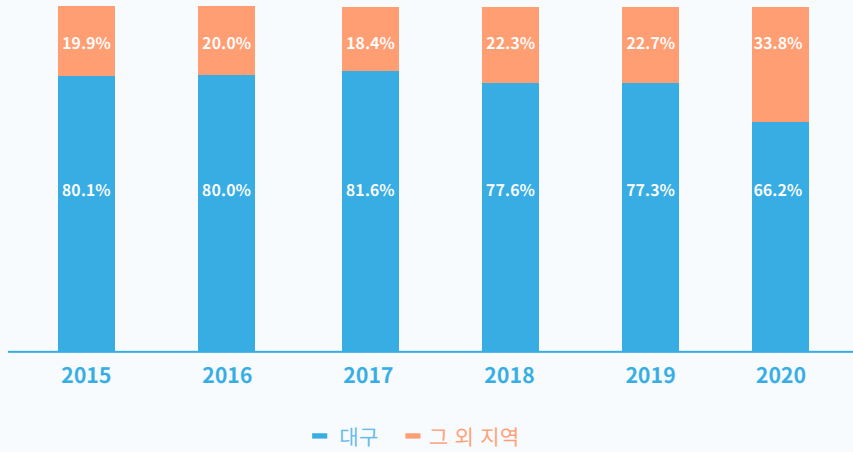


DIMF 박정숙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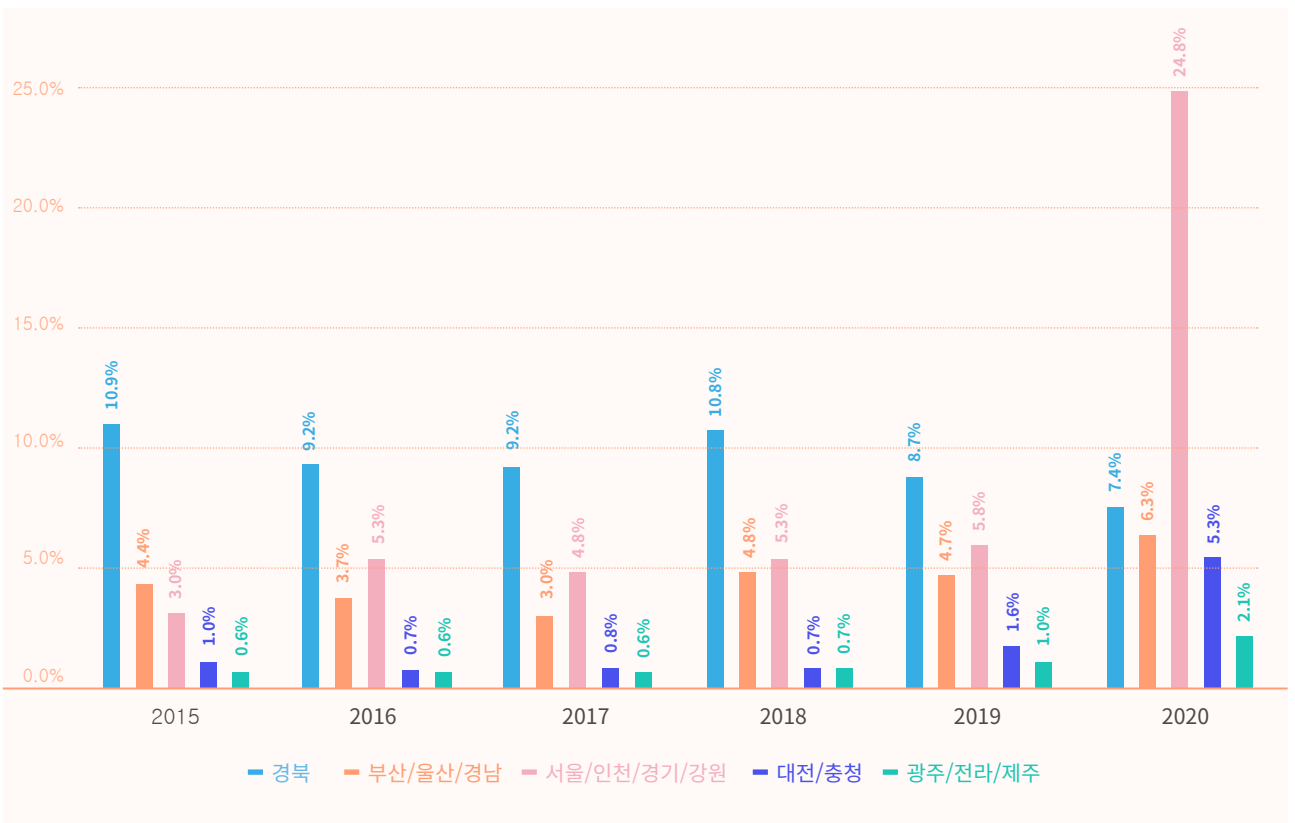
2002년 민간 공연 기획사에서 본격적으로 공연기획에 입문해 대구수성아트피아 개관 및 공연기획팀장, 대구오페라하우스 기획팀장 등 문화예술 전문기관을 거치며 현장 경험을 쌓았다. 예술행정학 석사를 졸업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운영위원과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문화예술경영전공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음악협회 이사이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의 심의 평가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2021년 DIMF 폐막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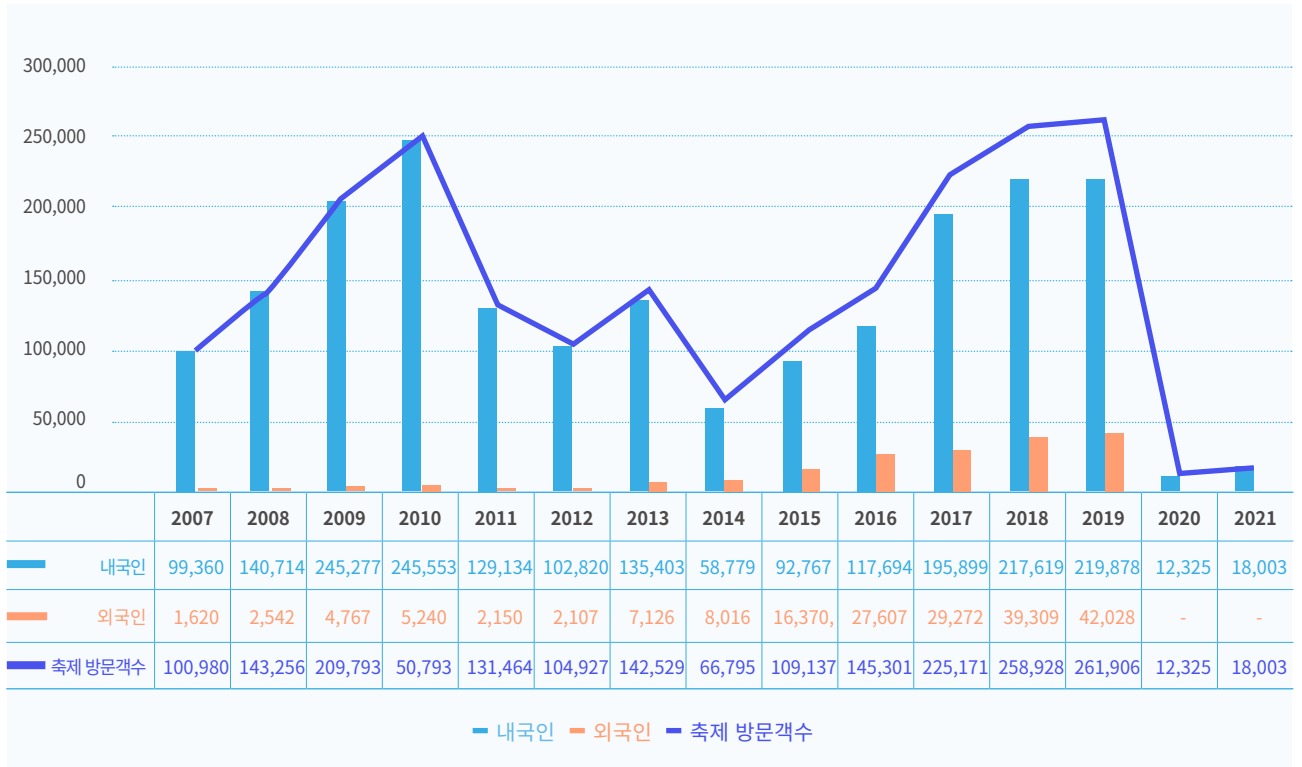
[표1] DIMF 대구와 그 외 지역 관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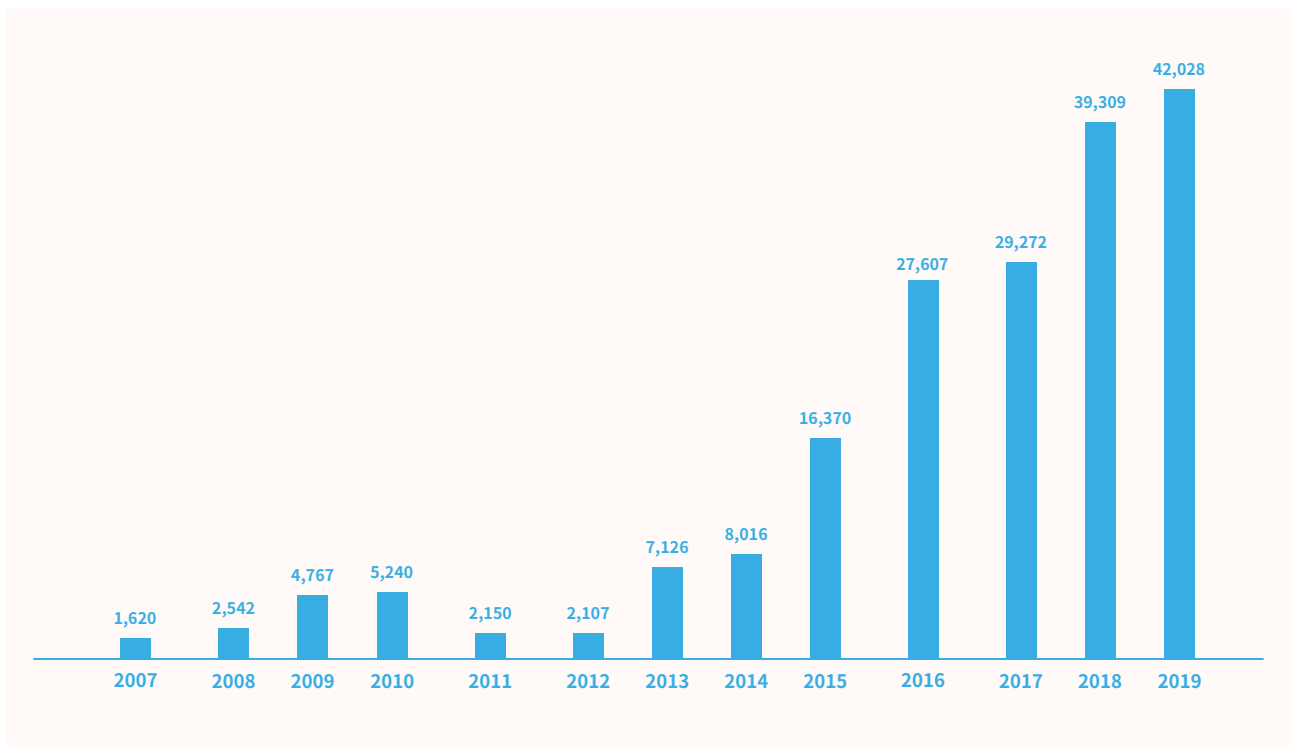
[표2] DIMF 연도별 대구 외 지역 관객 비율 변화 추이

DIMF의 관객 분포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외 관객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 관객 증가가 눈에 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외여행 등에 제약이 생기고, 수도권에서도 공연 관람이나 각종 축제 등 문화 소비가 자유롭지 못한 영향이 있었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재공연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DIMF 기간에 보지 못하면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역시 작용한 것 같다. 또 기존 해외 공식초청작에 몰렸던 과거 DIMF 관객에 비해 DIMF 창작뮤지컬 마니아들의 충성도가 코로나19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났다. 그러한 점이 2020년 수도권 관객 비중을 크게 끌어올렸던 것 같다.



[표3] DIMF 연도별 방문객 및 내국인, 외국인 변화 추이



[표4] DIMF 연도별 외국인 방문 추이

2014년과 2019년 사이 5년 만에 해외 관객이 다섯 배 정도 늘었다. 어떤 홍보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했는가?

KBS월드를 통해 DIMF 어워즈를 매년 전 세계에 송출해 왔다. 제작년에는 엑소 수호가 DIMF 홍보대사가 되어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었다. SNS 홍보를 할 때 중국을 포함 3개국어로 운영하고 있다. 10여 년에 걸쳐 DIMF를 알려왔는데 <DIMF 뮤지컬 스타>가 2~3년 만에 그 이상의 홍보 효과를 냈다. 젊은 친구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SNS를 통해 프로그램이 빠르게 홍보됐다. 예전에는 SNS가 지금만큼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SNS 채널도 많이 늘었고 <DIMF 뮤지컬 스타> 사업이 7~8개월 동안 꾸준히 진행되다보니 이를 통해 해외 관객들이 DIMF를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대구에서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대구는 2004년에 뮤지컬 <맘마미아!>를 한 달 반 정도 공연할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뮤지컬 시장이 큰 편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할 수 있었다. 지금 대구에 공공 공연장이 15개 정도 된다. 그중 절반이 1천 석 이상이고 나머지가 500석 이상 중대형 극장이다. 이들 15개 공연장의 공연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난 작품에 관객들이 오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3~4회 하는 공연이 대구에서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이상 공연한다. 장기간 공연 운영이 가능한 것은 그만큼 대구 공연시장의 수요와 규모가 크다는 의미이다.

창작뮤지컬의 산실



15회 DIMF 창작뮤지컬상 수상작 <말리의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창작 지원작이다.

창작 지원 사업은 첫해부터 시작했다. 그때는 창작산실과 같은 창작뮤지컬 지원 사업이 없던 때여서 더욱 반응이 좋았다. 지금은 DIMF가 창작뮤지컬의 테스트 마켓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 <마이 스케어리 걸>(2회), <스페셜 레터>(3회), <번지점프를 하다>(4회), <식구를 찾아서>(5회), <날아라 박씨>(6회) 최근에는 <더 픽션>(11회), <블루레인>(12회), <YOU&IT>(13회), 지난해 <프리다>(14회)까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DIMF를 통해 소개되었다.

2015년부터는 ‘뮤지컬 아카데미’를 운영해 창작자를 비롯한 뮤지컬 배우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도에 먼저 창의인재동반사업을 통해 창작자와 기획, 연출가를 양성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도했다. 2015년부터 <DIMF 뮤지컬 스타>와는 별도로 본격적으로 작가, 작곡가, 배우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곳 출신의 창작자들이 웹 뮤지컬, 창작 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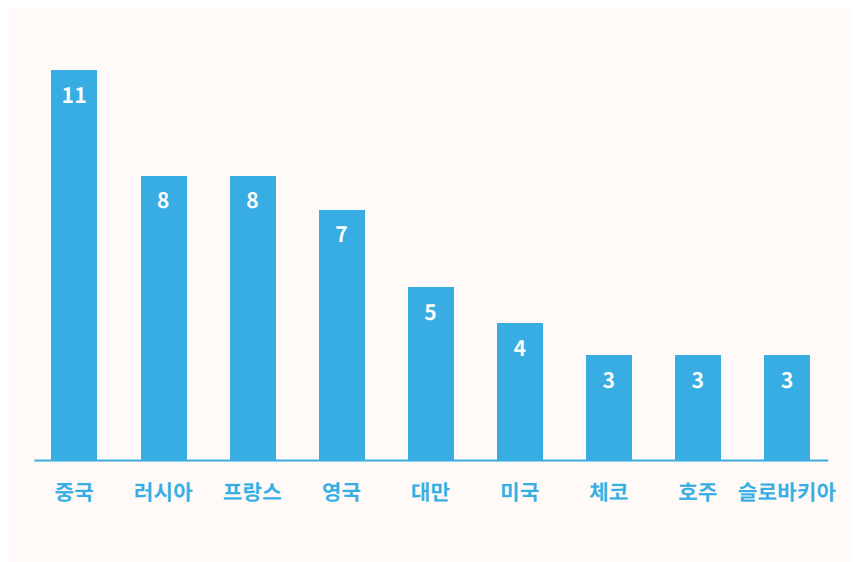
케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지역 공연의 창작진으로 참여하는 등 조금씩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 <라 루미에르>처럼 진출하거나, 아카데미에서 발굴한 배우들의 캐스팅 사례도 늘고 있다.

DIMF에서 <투란도트>를 자체 제작하기도 했다.

자체 콘텐츠가 필요했다. 2010년만 해도 지역 제작 작품은 지역의 인물이나 역사를 소재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글로벌 축제에 어울리게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로 오페라 <투란도트>를 뮤지컬로 만들었다. 2012년부터 중국 3개 도시(동관, 닝보, 항저우)에서 교류 형태의 공연이 계속되었고, 2014년 상하이 대극원 초청 공연에 이어 2016년 하얼빈 오페라극장 개관기념으로 6회 공연이 진행되었다. 2016년에 DIMF에 참여했던 슬로바키아 팀에서도 <투란도트>에 관심을 보였다. 2018년 동유럽 6개국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투란도트>의 슬로바키아 라이선스 공연이 이루어졌다. 올해가 뮤지컬 <투란도트> 10주년이라 슬로바키아 공연을 개막작으로 초청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 세계 뮤지컬을 초청해 왔다.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나라의 뮤지컬이 소개되었는데 그 작품들은 어떻게 찾아낸 것인가?

초기에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알음알음 소개받았다.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제작사를 통해 그 나라의 다른 작품을 소개받기도 했다. 예전에는 DIMF를 설명하고 대구를 설명해야 했는데 이제는 먼저 제안을 주는 곳이 많아졌다. 그만큼 DIMF의 인지도가 세계 시장에서 높아졌다.



[표5] DIMF 역대 초청 국가



한국의 DIMF와 극단 죽도룩달린다, 대만의 C Musical Production과 광해문예기금이 중국 진출을 목표로 공동제작한 뮤지컬 <Toward(내일을 사는 여자, 휘인)>

DIMF에서 이루어진 국제 교류 사례를 몇가지 소개하자면.

초기에 뉴욕뮤지컬페스티벌(NYMF)과 교류 사업으로 <스페셜 레터>나 <마이 스케이리 걸>이 초청되어 공연했다. 그 이후에도 DIMF에서 개발된 <사랑꽃>이 일본이나 중국 동관의 뮤지컬 페스티벌에 초청되었고,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꽃신>은 독일 공연을 했다. <플래시 댄스>, <메피스토> 등이 내한 혹은 라이선스 형태로 한국 공연이 성사되기도 했다.

올해 대만과 <Toward(내일을 사는 여자, 휘인)>를 공동 제작한 배경은.

DIMF와 한국 뮤지컬에 관심을 보였던 대만 프로듀서와의 관계가 발전하여 일찍부터 대만 작품이 소개되었고, 이번 공동 제작까지 이루어졌다. <Toward(내일을 사는 여자, 휘인)>는 극단 죽도룩달린다, 대만의 작곡가이자 C Musical Production의 장심자 대표, DIMF와 대만의 광해문예기금이 의기투합하여 중국 진출을 목표로 개발한 작품이다. 장심자 대표와 광해문예기금은 2019년 DIMF와 44명의 대만 문화 관련 인사들이 참여한 4박 5일간의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 11월 대만 공연 전에 DIMF에서 월드 프리미어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다. 원래는 대만 배우들이 출연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게 되면서 DIMF 뮤지컬 스타와 아카데미에서 배출된 배우들을 오디션을 통해 데뷔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15회를 지속해오면서 해외 네트워크를 상당히 탄탄하게 구축해 왔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해외 교류가 가능할 것 같다.

처음 축제가 생길 때부터 ‘국제’라는 타이틀로 시작했지만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DIMF와 함께한 해외 제작사와 작품이 많아지면서 네트워

크가 형성되는 것이 느껴진다. 앞으로 교류를 활성화해서 아트마켓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예산이 된다면 DIMF 기간에 해외 프로듀서를 초청해서 작품을 보여주고 싶다. 직접 초청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송출해서 아트마켓 기능을 해보려고 한다.